

#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고용개선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2. 8. 30.(화) 14:00~16:30, 15층 회의실
- 참석 : 총 11명(위원 6명, 간사 1명, 참관 4명)

기관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유관기관(2)	홍성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교학팀장	
	김두호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구기관(1)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자
언론(1)	강휘호	대한전문건설신문 기자	
공제회(7)	신익철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전략본부장	위원장 대행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발제자
	민상현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	간사
	임화진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등급관리팀장	참관
	원상연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	"
	최지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	"
	박지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등급관리팀	"

## □ 회의 안건

-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발제 : 나경연 위원)
- 기능등급제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발제 : 심규범 위원)

□ 회의결과

나경연 위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안건 발제
위원장	의견 있으신 분 발언 바람
홍성준 위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체계는 좋음 활용의 법제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함
임화진 팀장	건산법 등이 기술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기능적 요소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개선 기대하고 있음 주력분야 공시는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능력평가 반영도 정책 건의할 예정
홍성준 위원	시범교육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비용부담주체는? 근로자의 유인은?
임화진 팀장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은 10억원으로 동절기를 활용할 계획임
김두호 위원	13페이지 승급교육 받으면 100% 인정되는지 여부 지역에서 동절기 훈련을 하면 비용(폐기물처리비+재료비 등) 부담이 큼
강휘호 위원	경력환산기준이 있는지? 의무교육 불이행시 패널티가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이 되는지?
나경연 위원	외국인은 제외하고 있으며, 등급기준은 상시고용을 원칙하고 있고 패널티는 교육을 안받으면 승급을 못한다는 것이 패널티라 할 수 있음
김두호 위원	외국인이 형틀목공에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도 기능 등급이 필요 한게 어떤지
심규범 위원	고용부 훈련(진입교육)과 국토부 훈련(직무교육)과의 결국 중복될 수 밖에 없는데 상호 연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나경연 위원	상호 연계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아직 부정적이라, 향후 검토가 필요 하다는 제언으로 기재하였음
심규범 위원	30페이지 2번을 보면 현 기술인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것은 선택사항(기능등급제 또는 기술인 등급)으로 하는 것이 맞음
나경연 위원	업무분장 차원에서 언급한 것임
신익철 위원	기능향상훈련사업은 ‘양성’은 어렵고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양성 까지 추진하려면 추진 환경을 부처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임
	(10분 휴식)
심규범 위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안건 발제
위원장	의견 있으신 분 발언 바람

홍성준 위원	연평균 일수를 갱신하면 고급에서 중급으로 하락할 개연성이 있지는 않은지? 등급확인서를 4,800매 정도 발급됐는데 무슨 필요에 의한 것인지? 등급이 민간에서 활용사례가 있는지? 올 동절기에 승급 교육을 하면 참여할 인센티브가 없는데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심규범 위원	수치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지만 경계에 있는 사람은 하락우려 존재 기술인등급이나 SW등급제 모두 연수만 채우면 무조건 승급하는 구조이며 SW사업은 활용방안을 폐지하고 있음
임화진 팀장	전자카드 사업장 확대와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발급이 최근에 증가하였음 훈련생 모집이 키포인트인데 시범사업 시에는 2천명, 초급/중급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임 지자체/민간 활용사례는 연말에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향후에 적용을 협의할 예정이며 발급목적은 현재는 본인의 등급 확인 용도
김두호 위원	기능등급제가 빨리 정착되어 구직자 알선시 신뢰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되면 좋겠음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는 고급기술 전수, 병역혜택 등 유인책이 필요
나경연 위원	갱신을 한다면 직종 통폐합도 검토 필요 DB가 키스콘 등과 연계하여 직종 및 업종(공종) 같이 포함되면 좋을 듯함 고용보험 등 제외되는 소규모 현장도 별도로 경력환산에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심규범 위원	직종 통폐합이라기보다는 '직종 재정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나경연 위원	시범사업 성과평가지 업체 관계자들의 설문조사가 중요함
강휘호 위원	법제화되면 사용자 부담이 커지는데 인센티브가 있는지? 취지는 공감하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논의 필요 청년층에 비전 제시만으로는 유입이 적을 것이므로 인센티브 필요
심규범 위원	고용유지장려금같은 직접인센티브, 현장소장이 될 수 있다는 직업전망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기능등급을 보유한 현장대리인은 부담이 없을 것이나 명의만 제공하는 대리인등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 □ 서면 의견

### ○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 (김진실) 기능등급제와 산업별 역량체계(SQF)와 비슷하나 직종을 60개로 구분하고 그 안에 수준을 어떻게 구분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초-중-고-특에 대한 자격 체계 구축이 필수임

- (김진욱) 교육체계의 지속성 및 효과성을 위해 건설근로자들의 인센티브가 실질 작동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제도 마련과 현장에서 고급 이상 기능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정착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명래) 특급 승급을 목표로 한 고급기술자는 실기 교육은 필요치 않으며, 중급도 해당 공종의 특화된 내용 정도면 될 것 같음  
기능향상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이 입직자와 휴직자로 분류되어있으나 이는 단기간에 습득하기 쉽지 않고 현장 요구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정우섭) 기능등급제 대상 상당수가 건설기술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과 이중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교육이수에 대한 상호 인정 검토 필요

#### ○ 기능등급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김진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활용 시사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분포 현황 및 변화추이 두 가지 분야로 연구하면 좋을 듯 함
- (김진욱) 현장면담조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 과목과 교수 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공종별 면담조사가 이루어져 각 공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가 세밀하게 정착될 필요가 있음
- (이명래) 분석대상 모집단은 주택, 상가 등 소규모 현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하며, 모든 건설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차원의 교육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경기도 시범사업의 필수보유인력과 배치 기준 중 등급과 필수보유인력 수는 모두 낮게 보이며, 30억 이상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특급, 그 미만 공사는 고급이상으로 하며, 필수보유인력 수도 늘리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정우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검토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공사의 관리적 측면에 대한 역할과 범위,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관리에 필요한 이론·학문적 지식,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설 기능인과 건설기술인 간 역할을 분담할 필요

#### □ 향후일정

- 회의 결과는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등 추진 시 반영을 검토하거나 필요시 정책제언 등 추진

- 별첨 1. 회의자료 각 1부(발제문 2부 포함).  
2.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 관련 서류 각 1부. 끝.

<사진1>



<사진2>

